

[금융산업 메기, 핀테크가 간다]안상선 엠로보 대표 "로봇저널리즘과 핀테크가 만나 훌륭한 '투자비서' 탄생"

발행일 : 2017.12.27 10:30 지면 : 2017-12-28 23면





안상선 엠로보 대표는 로봇저널리즘을 바탕으로 금융사, 개인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안대표는 “이미 시장에는 다양한 로봇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단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기사보다 가독성이 떨어진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독자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 읽고 싶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를 시각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부분 기업 관련 소식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또는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주목받고 있는 대장주나 우량주뿐 아니라 기사로 잘 다뤄지지 않는 종목에도 많이 투자한다.

개인투자자는 매번 기업공시 자료를 찾아보는 것에 한계가 있어 투자 종목과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안대표는 “시중에 다양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등이 나와 투자를 자동화하는 시대가 되고 있지만 단위가 큰 투자는 결국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며 “로봇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엠로보 서비스가 투자 보조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엠로보는 로봇저널리즘으로 시작했지만 개인, 기업에 투자정보 제공, 챗봇 결합서비스 등 다양한 방향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단순 기사 제공을 넘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올해는 여론조사업체, 정부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데이터 분석을 의뢰받아 관련 매출이 발생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분석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오토리포팅' 관련 특허출원 신청도 했다. 또 올해 3월 우리은행 위비 핀테크랩 2기로 선정돼 기존 금융권과 협업에 박차를 가한다.

안대표는 “단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가공한 정보를 주는 것이 우리의 핵심 업무”라며 “은행 챗봇과 결합해 원하는 추가 정보를 채팅창에서 바로 제공하거나 주가 변동 히스토리를 분석해 투자 종목을 추천하는 등 협업분야를 다양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엠로보는 내년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서비스 특성상 단순 텍스트, 도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본어, 영어, 태국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즉시 번역해 제공할 수 있다. 실제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태국 내 핀테크 기관과 10월부터 협상에 돌입했다. 내년 1월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는 것이 목표다.

성과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jung01@etnews.com

allshow TV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최적의 대응 가이드



데이터 기반 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4가지

BRAND NEWSROOM

버넥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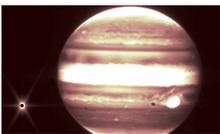
버넥트, '2022 제1회 XR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 개최

버넥트(대표 하태진)는 '2022 제1회 XR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뉴스



'메타버스 금융' 급물살 탄다



'태초의 빛' 찾는 제임스 웹이 보내온 신비로운 목성



"올가을 애플워치8, 기대할 이유 없다"...왜?



수자원 안정성 확보 등 2개 사업 국가R&D 예타 대상 선정



전 세계 밤하늘 장식한 올해의 최대 슈퍼문 '백문'



미래첨단소재 "나노 분쇄 기술력으로 2025년 매출 3000억 도전"



무탄소 친환경 선박 혁신기술 개발 착수...10년간 2540억원 투입



한미반도체, 2분기 매출 1232억원... '분기 사상 최대'



위지웍스튜디오 "드라마 '블랙의 신부' 넷플릭스 공개"



르노코리아, 韓·佛 의미 담은 'SM6' 전시



日 언론 "尹, 짚았던 허니문... 지지율 급락"



이동학 전 민주당 청년최고위원 '당대표 출사표'



박지현 "아름다운 용퇴 설득할 것... 후보 등록 반려 명분 없어"



SK온-포드 합작법인 '블루오벌SK' 공식 출범



"배터리 77.4kWh로 키웠다"...현대차, 2023 아이오닉5 출시



르노코리아차 노조, 파업권으로 사측 압박...찬반투표 '80.6%' 가결

TVING
seezn

티빙-시즌 합병... '넘버원 K-OTT' 탄생

많이 본 뉴스

- 1 쿠팡플레이, 토트넘 방한경기 단독 생중계
- 2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오미كرون·변이에 효과"
- 3 애플 메타버스(XR) 기기, 내년 초 출시...부품 생태계 확장
- 4 국내 'LG 채널' 수 1년 새 144개→26개로 급감
- 5 KT의 콘텐츠 저력... '우영우' 넷플릭스 1위 등극

Copyright © Electronic Times Inter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